

- 2026년 제1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회 의 록

용 인 시
[청년정책과]

□ 개 회

○ **[간 사]** 바쁘신 일정에도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 사업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진행

○ **[간 사]** 금일 안건은 2026년부터 2030년 국가 및 용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2026년 용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2025년도 용인시 청년정책 추진 실적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되고 공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 소개 및 인사말씀

○ **[간 사]** 다음은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에 첫 개최되는 회의라서 위원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간단한 위원님들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뒤에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임정섭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임정섭 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 용인시 청년들에 비해서 29만 정도로 약 한 1만명 정도 줄었는데요. 우리 또 올해도 우리 용인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마음 함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다음은 김현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말씀 없으세요? 네. 그 다음에 노자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노자은 위원]** 연구원에서 청년 정책 좀 맡고 있는데 조금 더 밀접하게 더 들여다보고 더 다채로운 청년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다음은 최상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최상국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참석했는데요. 산업과 청년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에 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간 사]**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김현기 위원]** 일단 저는 처인구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고요. 용인에서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 만큼 애정을 가지고 청년정책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다음은 박예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박예지 위원]** 네. 제가 먼저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서 정책은 논의 못할 것 같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감으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회의는, 보고 읽어도 괜찮을까요? 처음 참여 기구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상담사를 준비하기 전 사람과 집단을 이해해 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임기부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지만 참여 기구와 청년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까이서 경험하며 많은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죄송합니다. 소프트 지원사업의 신설과 확대는 저와 동료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6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청춘의 리더로 활동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운영 규칙 개정, 참여 기구 운영 등 여러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청년정책이 만들어진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린 청년이 한 걸음씩 걸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함께해 주신 공무원 분들과 동료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기는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고 있지만 아직 몇 번의 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다음은 손현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손현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정연구원에서 경제 산업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손현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청년 활동을 이어왔고요. 청년이 선도하는 용인 그다음에 청년과 함께하는 용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다음은 이승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이승현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지방 정부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앞서서 그 자료 공유 주셔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용인이 정말 청년의 진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더 노력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다음은 문명순 사회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문명순 사회복지국장]** 복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청년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다음은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우리, 제가 이제 청년정책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요. 청년이 우리 용인시의 청년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반영되고 실행되고 함께하는 그런 용인시의 어떤 가장 실행적인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 부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 1차 기본계획이라는 게 5년 단위로 끝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30년을 바라보면서 5년에 기본계획 세우는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기고 용인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 [간 사] 다음은 김정훈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훈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을, 개인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정책이나 예산들을 살펴봤을 때 규모도 훨씬 크고, 그리고 또 다양한 정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12월달에 제2차 청년계획이 정부 정책으로 시작되면서 용인시도 발 빠르게 용인시에 게시는 청년분들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책들을 좀 많이 고심하고 또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 서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좀 배열을 좀 같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개년 계획이 좀 제대로 수행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시행 방안 자체도 되게 구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이따가 얘기 좀 들어보고 같이 또 의견 나누는 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좀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업에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원보고

○ [간 사]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원 20명 중 11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 주재는 김정훈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의선언이 있겠습니다.

□ 개의선언

○ [김정훈 공동위원장]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1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 국가 및 용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2026년 용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2025년 용인시 청년정책 추진실적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 **(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최지은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서 2030년까지 국가 및 용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26년 용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마지막으로 25년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에서 30년까지 5년간의 용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제2차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년정책의 범위가 취업 지원 중심에서 생애 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 정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용인시는 청년 인구가 2020년 28.6%에서 2025년 26.6%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 등 대규모 산업 확장으로 미래 인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청년 인구 감소, 미래 인재의 수요 증가와 함께 청년의 정착 안정 참여를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용인시는 국가 2차 계획과 연계하여 새로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동향입니다.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용인시는 여전히 29만 명 규모의 대규모 청년 도시입니다. 다만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책 수요 측면에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일자리, 주거 복지 지원, 공간 지원 정책 참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차 국가 청년정책 3대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 보장입니다. 기존처럼 취업 지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첫 직장 진입부터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청년의 기본 생활 안정입니다. 주거, 금융, 복지, 문화까지 삶

전반을 지원하며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생애 전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이 정책 대상에서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전환되었고, 국가가 참여 비율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늘렸습니다.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주요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1차 기본계획에서 일경험 확대가 중심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 취업 준비 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차에서는 첫 일자리와 재도전이 핵심 키워드로 첫 사회 진입 시 지원을 강화하고, 퇴사 경력 단절, 구직 단념 상태에 있는 청년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연결하는 재도전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 분야로, 1차 때는 기술 창업 중심의 지원이었다면 2차 계획은 여기에 더해 전반의 창업 기회 확대와 디지털 콘텐츠 등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분야로 1차 계획이 대학생 진로 취업 역량 지원 위주였다면, 2차 계획은 고졸 청년 및 전문 기술 인재 육성, 특히 반도체, AI, 디지털 등 국가 전략 산업 인재 양성을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주거 분야로 1차 계획은 청년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계획에서는 공급과 함께 월세 부담 완화, 보증금 사기 피해 예방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망 체계가 강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 자산 분야의 변화입니다. 1차 계획은 청년 희망적금, 도약 계좌 등 자산 형성 중심이었다면, 2차는 금융 역량 강화, 신용 회복, 부채 관리 등 금융 건전성 중심의 정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 건강 참여 분야 변화입니다. 1차는 일부 고립 청년 지원에 10억 수준에 있었지만 2차 계획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가정 밖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과 같은 신취약계층을 국가가 공식 정책 대상으로 포함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비전 및 목표 전략입니다. 비전은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 친화 도시 용인이고, 향후 5년간 청년의 정착률, 생활 안정, 성장 기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가치 목표입니다.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이 있으며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구직 단계별 맞춤 지원과 청년 인턴 돌봄, 아동 대학생 매칭 학습 지원 등 공공기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과 함께 청년 창업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진로 연계 취업과 창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취·창업센터를 조성하여 용인형 원스톱 플랫폼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 전략으로 월세에서 전세, 주택 공급까지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인형 청년 월세를 도입하여 기존의 월세 지원사업을 구한 수혜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비, 중개, 보수, 보증료 등 주거 간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인 플랫폼시티 국가산단 등에 청년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급 기반을 넓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전략으로 미래 산업 기반 실무 교육 강화입니다.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등 지역 산업과 직결된 실무형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 연계 진로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대학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청년 교육 훈련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 기반 직업 훈련 안내,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청년이 필요한 교육을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복지·문화 전략입니다. 청년 자산형성 기반 강화를 위해 용인형 청년 예금 신설, 금융 역량 교육 확대 등 청년의 첫 자산형성을 돕고 청년자립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가정 밖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처인LAB과 기흥LAB을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확장 이전하여 청년 문화 공간, 커뮤니티 활동 등 문화 예술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기반 전략입니다. 정책 참여 시 참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시 위원회 청년 위원 비율 확대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의견이 구조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에서 청소년·청년재단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단계별 로드맵입니다. 기본계획은 1, 2,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먼저 1단계는 2026년으로 기반 구축 단계이며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 제도,

AI 취업역량 강화사업 신설, 용인 청정대학체전 첫 개최 등 핵심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27년부터 28년까지는 1단계에서 마련한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며 청년 취·창업센터, 청년자립지원센터, 청년LAB 등 인프라 기반 강화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29년부터 30년까지는 청년 인프라 조성을 완료,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살 수 있는 정책 생태계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용인시 청년정책입니다. 작년 11월에 안내되었던 부분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총 71개 추진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6억 원이 증액된 총 360억 4천만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복지·문화 분야가 21개 사업, 256억 9천만 원으로 전체 71.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어서 주거 분야 15%, 일자리 분야 9.1%입니다.

2026년에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춘 AI 활용,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인 청년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RISE 사업과 반도체 기업 신입사원 통합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복지·문화 및 참여 분야에서는 용인형 청년 예금 출시와 대학생들의 활기찬 소통을 위한 용인 청정대학체전 등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반면 ICT 디바이스, 용인LAB 운영 사업 등 13개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사유는 국도비 사업의 종료, 한정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사업들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년정책 통합 포털인 청년e랑을 본격 정착시켜 정책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주거와 정신건강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고,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는 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

25년도 청년정책 규모입니다. 총 81개 사업 324억 9천만 원입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문화 분야로 총 21개 사업 245억 9천만 원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분야는 일자리 분야로 전체 11.4%입니다. 다음은 주거, 교육, 참여·권리 분야로 각각 8.5%, 3%, 1.4%입니다.

다음은 25년 분야별 실적입니다. 청년 일자리로 강소기업 청년 인턴 6명,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120명, 돌봄 아동 대학생 매칭 학습 지원에 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취업 지원은 용인 청년 희망 옷장을 통해 면접, 정장 대여가 1666회 이루어졌으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개소에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 분야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으로 128명에게 총 2억 4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월세 및 임차료 지원을 위해 2022년 시작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누적 인원 2900여 명에게 총 74억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개보수 감면을 위한 착한 부동산 331개소의 참여로 청년 414명이 중개 보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241명에게 총 2억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125가구에 총 1억 2천만 원,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로 100명에게 총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능력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에 707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핏테크 프로젝트 41회 702명, 용인 청년 인생 설계학교에 12회 21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525명에게 총 4억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용인 청년LAB을 활성화하여 총 2만 9천여 명의 공간을 이용하여 전년 대비 20.9%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537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4056명이 참여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청년 마인드 케어 사업으로는 71명에게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에 또래 활동가 12명을 양성하고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서적 고립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으로 4만 2천여 명에게 총 116억 1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1383명이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관리 분야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명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72명을 운영하여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으며, 용인 청년포털 청년e랑을 운영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정책과 SNS 채널 구독자 수 총 2만 3800여 명을 돌파하여 디지털 소통 역량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청년 페스티벌을 약4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2030 청년 봉사당 활동에 18회 6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청년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간 사]** 네. 잠시 저희 회의하는 동안 박희정 의원님께서 도착을 하셔서 인사말이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 **[박희정 의원]**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방금까지 들으셨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이번에 저희가 해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이 내려오는데요. 1차 기본계획이 작년 차로 끝났고 국가에서 2차 기본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 용인시도 대략적인 기본계획을 짜고 그거에 맞는 실행 계획을 오늘 심의를 해 주시는 자리거든요. 저희 지금 설명 속에 2차 기본계획과 국가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를 정책팀장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2차 기본계획에 따른 용인시의 계획은 어떤지가 7페이지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놨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짜다가 구체적인, 그러니까 대략적인 용어들보다는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을 해서 추후에 이 과제가 실행됐는지 여부를 위원님들이 체크하시기 좋게 저희가 핵심과제라는 걸로 도출을 해서 이 분야,

분야마다 꼭 해야 될 과제들을 하나씩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뒤에 지금 저기 담당 팀장님들이 와 계신데요. 저희 시행계획 중에 또는 2025년도 계획 중에, 실적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쪽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는 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고요. 31년도에는 또 한 번 3차 국가 계획에 의거해서 또 수정을 보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2차 계획이 창업 중심으로, 취업도 물론 가져가는, 취업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고 취업에서 이제는 창업 중심으로 가야 돼서 창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국비 사업들이 많이 쏟아질 거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는 고립 청년들, 은둔·고립에 관한 청년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돌봄이 3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통합 돌봄도 물론 있지만, 그 청년·청소년에 대한, 돌봄 청년도 같이 들어오게 된 것도 조금 다른 거고요. 자립 청년에 대해서 복지 쪽이 조금 확장됐다라는 내용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참여·기반 쪽의 과제로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재단은 있는데 청년재단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청년 따로 청소년 따로 하기에는 겹치는 기간이 많아요. 청소년은 18세부터 24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18세부터 39세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청년·청소년재단을 합쳐서 운영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이나 자립 업무들도 많이 확장이 되고 계속 공무원을 증원해 가면서 이 수행을 하기에는 상설화될 것 같은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재단에 대한 논의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려고 작년부터 사실은, 저희 노자은 박사님께서 연구도 많이 해 주셔서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요. 저희가 여러가지 정책들을 어느 정도 수행한 후에 친화도시를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 하에 저희가 지금 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정책들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시대 때문에 교육 확장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바야흐로 AI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 교육 중에 AI 특화 교육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일자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여기 로컬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와 그들의 니즈, 그 채용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우리 용인시에 있는 청년들을 매칭하는 생태계 구축을 하려고 올해부터 데이터 작업들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자족 도시처럼 우리 시에 있는 사업체가 사실은 남부권에서 2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사업체부터 매칭을 시작해보자라는 의미로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작업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꼭지들이 그런 식으로, 변화의 초점들이 이제 국가 정책도 있고 용인시도 국가 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변화를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페이지로 또 설명을 부연으로 드리자면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대비 36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의 주요 내용은 사실은 대학교랑 RISE 산업을 작년 시작을 해서 예산이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근데 RISE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 문제를 대학과 같이 풀어나간다는 그 테마를 가지고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학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RISE 산업이 작년에 비해 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여러가지 종료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사업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종료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일회성 사업들, 예를 들어 59초 솟품 영화제 이런 것들은 일회성 행사 사업이라 저희가 다른 사업을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다른 사업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종료를 시켰고요.

좀 의아해하시는 게 주거 쪽에 창업지원주택 운영 지원이 종료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창업 지원 주택으로 저희가 5차까지 공고가 났는데 그래도 공실이 조금 있어서 창업 지원이라는 조건을 빼고 청년한테 다시 분양을 하려고 창업지원주택만 종료를 한 거고 청년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 부연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 **[손현수 위원]** 네. 손현수 위원입니다. 방금 창업지원주택 관련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좀. 창업지원주택 위치가 되게 약간 접근성이 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창업자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어가지고, 약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근처에 위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창업 지원센터가 창업 지원 주택이나 좀 어떤 접근성을 고려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하는 것이 공실 예방에도 그렇고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간 사]** 네. 위원님 말씀 100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LH랑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협의를 보거나 창업주택을 협의로 볼 때 가급적이면 청년들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이 가장 큰 1순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LH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한 6개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접근성의 가점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업주택이 명지대 뒤편에 좀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 창업하시는 청년들한테는 좀 매력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명지대랑 가까우다 보니 이거를 차라리 그냥 청년한테 풀면 어쨌든 명지대에 있는 캠퍼스를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또 유리한 조건이라서 그거는 그렇게 LH랑 협의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 **[이승현 위원]** 저도 발표 듣다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일단 28년도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거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지정을 받으면 혹시 용인시나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좋은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3~4쪽에 보시면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요소는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페이지랑 13페이지를 보시면 25년도에 일자리 예산은 36.9억이었는데 26년도에는 32.7억원으로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간 사]** 네. 일단 청년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화도시 지정이 된다고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막 내려오고 이런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청년

정책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냐의 척도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반드시 도전을 해야 될 상황이고 친화도시로 지정된 시가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 살펴보면 이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들이 많은 시가 대부분 됐어요.

그래서 농촌도시 같은 경우는 농민 중에 청년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냐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있는 정책이 많은 시가 친화도시가 됐는데 용인시도 앞으로 친화도시 목표를 두게 되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년 위원들을 확대할 예정이라서 여러 분야에 청년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훨씬 청년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넓어지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친화도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분야는 저희가 감소됐던 이유는 딱 저희 과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중소기업의 청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금을 주게 되는 그런 보조 매칭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공모 형식으로 저희가 그거를 따 갖고 오는데 작년까지가 마감이 돼서 올해 새로운 공모를 저희가 또 선정이 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매칭이 돼서 그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공모 중에 3개가 종료가 되는 바람에 예산 상으로 크게 보시면 이거 줄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되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공모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또 새로운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 **[손현수 위원]** 네. 청년 참여가 확대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어떤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청년들의 의견을, 기존 정책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자문 형식의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좀 더 주체가 돼서 정책들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청년 패널을 구축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 패널을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청년정책을 수립을 할 때 청년들의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청년 패널을 구축을 해서 좀 운영하시는 방식으로 추천드립니다.

○ **[간 사]** 네.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에 있어서 사실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거나 계획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이 확정된 사항을 네트워크 해당 위원님들한테 이걸 공유를 하고요.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조정위원회에서 안건 해 주신 거가 확정되는 순간 청년 네트워크에도.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요. 저희 네트워크에서 정책 제안 대회를 해요. 근데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다 같이 밀고 나가는 정책은 더 힘이 있으니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운영 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청년 네트워크랑 같이 발굴을 할 예정이고요. 서울에 패널이 있어서 다양하게 패널들의 모니터링 활동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패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숙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좀 풀고 패널 문제는 다가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노자은 위원]** 손현수 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저도 패널을 아마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창조 신화 도시 연구하면서 분야별로 용인시가 추진해 온 역대 그 현황들을, 정책 현황들을 쭉 분석을 해봤을 때 아까 초반에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도 용인시가 청년의 진심이다 이런 얘기들 해 주셨고 실제로도 청년 정책들이 아까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라든지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낸 정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이 좋고 정말 관심도 많고 청년담당관이라는 이런 독립적인 부서도 있었고 지금도 더 규모를 청소년 쪽이랑 해서 넓히려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연구원 입장에서 청년 패널 데이터 구축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효과를 입증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주거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경험해 본 청년이 실제로 우리 주거 안정을 용인시 내에서 이루었는가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저출생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별 격차라든지 그리고 실제 생애 주기의 이행에 있어서 얼마나 안정을 이렇게 이끌어냈는지가 중요하고 또한 용인시 특성이 또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되게 크기 때문에 실제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또는 얼마나 안착을 했는지 저는 한 지역에서 청년이 무조건

정주하는 것이 지역 지방 정부가 추구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청년들의 앞에서 우리 필요성에서도 정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끄는 게 우리 청년 정책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객관화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삶의 질 격차가 지역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년기부터 경험하는 이런 삶의 양상들을 좀 조사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신건강 부분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패널 데이터 구축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신설 조직으로 신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도 연구원도 본 중요한 이슈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 부분의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 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 **[박희정 위원]** 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인시의 특수한 이 지역의 그런 조건들이 사실은 공장이나 이런 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처인구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에 지금 오랫동안 있지 못하는 게 교통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해결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 측이나 아니면 공장 측에서 이 셔틀을 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경전철 역에서부터라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우리 청년들이 원활하게 좀 일자리를 찾으려 갈 수 있고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좀 이게 방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쪽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그럴 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저희는 이 현실 속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아마 서로 청년들이 좀

논의를 하면서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LH의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가 동백인데 동백호수공원 동백역 가장 가까이 있는 쥬네브 상가, 여기가 공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주택으로 만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동백호수를 돌면서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사실은 손병수 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 논의도 하기도 했고 제 담당 지역구의 의원님이 국토부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LH나 가깝게 지내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드리면 바로바로 또 피드백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명지대는 너무 한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명지대학교만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문화적인 거나 식주락이 같이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자리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주락이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우리 청년들의 주거 상태가 된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쥬네브가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진짜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1인 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준비를 좀 어서 용인시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낼 때 저희가 지금 2026년~2030년에 대한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아까 우리 시정연구원에 계시는 노자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성과는 어땀고 이런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데이터는 어땀고가 앞장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계획들을 세울 때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세워졌는지 그런 걸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현 위원]** 또 제가 관심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보면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4쪽에 보시면 돌봄 아동-대학생 매칭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이게 몇 명의 아동이나 몇 개의 돌봄 기관이 혜택을 누렸었는지 그런 좀 실질적인 현장의 그런 혜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52쪽에 있는데 이게 정말 체험에만 방점을 둔 그런 정책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이게 좀 지원자가 많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나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저는 3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60명이 이렇게 근무를 한 4주 동안 하면 사실 부서에서도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여기서 정말 그냥 어떤 근무를 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혹시 약간 인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조금 개월 수를 늘려서 진행하는 방안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시면 그 용인형 청년 예금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사업 대상 기준을 보면 이게 적금 만기자 6개월 이내에 적금 만기자라는 기준이 있는데 왜 이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어렵다라고 하지 않으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들이, 희망하는 모든 청년들 다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해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벤트데이는 이게 예상해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루에 1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책은 혹시 왜 하시는 건지, 홍보나 이런 청년들의 공간을 조금 더 홍보하고자 하는 건지 약간 이런 것도 조금 목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일자리팀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장 김희정입니다.

저희 일단 돌봄 아동-대학생 매칭 학습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인시 거주 대학생과 관내 돌봄 기관 간의 매칭 근무를 통해서 청년에게 아동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일단 상반기 때 22명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또 하반기 때 별도로 공고를 통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34개소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27개소에서 이렇게 참여를 일단은 해주고 계시고요. 이곳에서 교과목 지도나 기타 재능 나눔을 통한 아동 학습 놀이 지도 보조 업무를 하고 있고 대학생이다 보니까

또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일을 4시간, 주 5일 시간을 조금 자율적으로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로 최대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진행을 해서 학생들한테는 일경험을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아동의 입장에서든 대학생과의 학습이나 놀이 활동 꼭 학습적인 요소가 아니어도 이런 게 대학생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하면서 보내면서 많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청년, 예. 되게 좋아하고, 경험했던 친구들이 다시 그 다음에 또 지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헤어질 때 되게 아동들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되게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은 인턴 관련이셨을까요?

○ **[이승현 위원]** 네. 행정 체험 인턴.

○ **[간 사]** 52페이지인데, 요거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인턴 제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40명 정도가 9개월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턴들이. 근데 그 인턴 외에도 이거는 대학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해서 하는 체험 연수입니다.

○ **[이승현 위원]** 실제로 일을 하나요?

○ **[간 사]** 그럼요. 대부분 보조 업무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작업을 할 때 데이터를 같이 정리를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청년복지팀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복지팀장 신미화라고 하고요. 지금 용인형 청년 예금 관련해서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인형 청년 예금은 저희는 비예산이지만 농협 5개소 신한 4개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현재 6개월 이내 적금 만기자로 처음에는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현재로서는 청년 적금 만기자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자금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연계가 되는 정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책 적금 이후에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간 사]** 네. 20날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요. 1%를 지역 농협 지역 신협에서 1%를 더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하기 시작했던 거는 정책 적금이라고 그래서 매칭으로 해 주는 적금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 국가 예산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매칭까지 해주기에는 예산 부담이 조금 너무 커서 그 다음 작업을 찾아보다 보니 친구들이 정책 적금 만기가 되면 홀랑 찾아서 다 주식에 넣거나 아니면 아예 세계여행을 떠나거나 이렇게 한 번에 써버리는 예도 많아서 저희가 일부는 종잣돈처럼 예금화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희가 종잣돈 교육까지 같이 저희 용인시는 그런 금융 교육을 하고요.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신협들은 1% 금리를 더 줘서 그렇게 상생 협약을 해서 가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친화도시 하려고 많은 작업 중에 착한 부동산 아까 쑥 지나갔었는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중개업 스스로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청년들이 오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협, 신협이 스스로 1%를 더 주는 이런 정책들이 많아질수록 친화도시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편으로 이렇게 비예산이지만 지역과 함께 청년 문제를 같이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이승현 위원]** 실무적이긴 한데 예금할 때 그 금액이 약간 얼마 몇천만 원.

○ **[간 사]** 네. 한도가 천만 원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장병 적금이 타깃이긴 한데요. 장병 적금이 제대를 하실 때 2천 한 100만 원, 2200만 원 남짓 갖고 나오신대요. 그래서 받은 예금을 해서 종잣돈으로 두시고 받은 투자를 하시든지 여행을 하시든지 그렇게끔 유도를 한번 하려고. 아직은 협약이 안 됐고 20날 협약을 하면서 시작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 **[이승현 위원]** 아쉬워 가지고.

○ **[간 사]** 네. 근데 저희가 1250명 정도 모집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1억 2500 정도의 지역 예산이 청년들한테 풀리는 거니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 번 결과 보고도 드리고 확대를 할지, 어떻게 할지도 다시 조정위원회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이승현 위원]** 네.

○ **[김현기 위원]** 이 똑같은 청년 예금 사업 예상 수혜자가 용인시 청년 29만 명 중에 어느 정도인지.

○ **[간 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작은 1,250명을 했는데 사실은 농협이랑 신한이랑 3차 회의, 4차 회의까지 진행을 하다가 정책 적금으로 줄인 이유는 기존 예금자가, 또 기존 예금 청년들이 다시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 청년 예금자들을 그렇게 확 풀어버리면 모든 청년, 이렇게 풀어버리면 또 다른 차별이 생기니 일단 정책 적금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한번 해보자. 첫해라서 저희가 그 범위를 약간은 작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 지금은 9개 기관이지만 아직 참여 안 한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확대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 **[청년복지팀장]** 또 말씀하신 매월 테마가 있는 이벤트데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청년LAB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청년 공간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청년들이 왔다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이 이벤트데이는 청년들이 네트워킹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네트워킹 중심의 청년LAB이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현수 위원]** 저 AI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쭙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에서 챗GPT 구입이 지금 예산 소진 됐다고 알고 있어요.

○ **[청년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상반기 예산은 소진이 됐고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손현수 위원]** 이게 너무 빨리 소진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AI 역량이 현재 되게 경쟁력의 큰 부분으로 좌지우지하는데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벌써 아직 3월 초인데 벌써 예산이 소진되는 게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AI 활용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이런 정책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떤 자기소개서 평가나 이렇게 면접 모의 면접이나 이런 코칭 같은 거는 기존에도 있긴 있었어서 AI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약간 청년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저는 좀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대안으로는 청년LAB의 AI를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같은 거를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청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AI를, 챗GPT나 세미나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간 사]**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챗GPT 유료 버전에 대해서 또 저희 고민을 하나 위원님들한테 털어놓자면, 이게 저희가 품목을 하나하나 첨가를 할 때마다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챗GPT 작년엔 사실 6개월에 걸쳐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냈더니 요새 누가 챗GPT 쓰냐고. 또 새로운 종목을 하나 하려면 또 6개월이 걸리는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 중앙기관이랑 협의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로바로 바뀌는데 사회보장협의를 6개월씩 걸린다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조정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렇게 고정 테이블이라든지 챗GPT를 LAB에서는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저희가 즉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희정 의원]** 혹시 6개월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간 사]** 품목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을 할 때는 1인당 5만 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비 5만 원에 자유롭게 무슨 한글 파일을 쓰던 엑셀을 쓰던 그 친구가 하면 좋은데 엑셀, 한글 파일, 챗GPT 이걸 하나하나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이 품목을 이렇게 지원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GPT나 이런 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AI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챗 GPT라는 품목을 넣어서 하다 보니 챗GPT 벌써 이제 한물 갔고 탄 게 와서 벌써 친구들은 다 쓰고 있는데 항상 지자체는 챗GPT를 내놓으니 근데 사실 그것도 모자라긴 해서 품목을 조금 자유롭게 확대도 하고 예산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희정 의원]** 그 활용도에 따라서 사실은 GPT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상을 사용하는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다른 AI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예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간 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본계획에 AI교육 강화가 왔기 때문에, 아니 국가가 교육 강화만 시켜놓고 뒤로는 규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내부 쪽으로 청년, 이게 지자체의 모든 문제니까 저희 사회복지 쪽에 보장협의체라 그 문제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희정 의원]**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그러면 챗GPT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건지를 한번 수요 조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손현수 위원]** 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반도체 신입사원 교육이라는 형태에 굉장한, 아무래도 용인시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은 기업에서 HRMA 측면에서 좀 많이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반도체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의 어떤 반도체 관련 역량 강화가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니즈 파악을 해서 파악한 니즈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 **[박희정 의원]** 반도체라는 것은 정말 전문 분야고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의 교육에 의해서는 절대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RISE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26년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고 저희가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을 가요. 그거는 저희 지역에 아직 그게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타 지역에 가서 그거를 갖다가 교육을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는 단기간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인재 양성이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회사에서는 더 전문적인 분야의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인재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반도체 역량 강화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만 정작 우리의 지금 교육을 보면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처음 출발이라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청년을 위한 조례는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근거는 마련해 뒀습니다.

○ **[손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 **[임정섭 부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임정섭입니다. 2030년까지 청년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느낍니다.

일단은 청년정책을 오늘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예산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저희 SNS 채널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의 대부분이 참여자 수도 증가하고 그래서 양적인 수치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치를 만들어내시는 데 기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으셨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그럼 질적으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청년e랑에 접속했고요. 자주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오랜만에 로그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청년들의 어떤, 이 책 속에 담지 못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고민이 돼서 청년e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해봤는데요. 제가 좀 봤을 때 그래도 좀 좋았던 거는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자료가 아카이브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저희 청년e랑이에요. 그 많은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이 회의록을 볼까 라고 생각하신 담당자가 계셨으면 안 올렸겠지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회의 준비할 때 다른 지자체에 회의록이 있으면 찾아서 보는데 저희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청년 계획,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들을 홈페이지에 좀 잘 제공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소수가 찾을 만한 내용도 잘 담아주셔서 그런 거는 감사한 마음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은 여기도 없고 거기도 없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라는 조정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트워크에서 제안 대회나 아니면 커뮤니티, 아카데미 같은 곳에 저희 조정위원들을 좀 초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이런 좀 개방된 행사가 있으면 네트워크를 제외 포함해서 어떤 연구원 행사나 아니면 어떤 문화재단이나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많이 좀 초대를 해 주셔서 저희가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그냥 조정위 말고, 네트워크 활동만 할 때는 매일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이 책자에는 실리지 않고. 이 회의 시간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정위 첫 회의에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누락되지 않게 좀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출생 대응 방안이 사회적으로 아무튼 굉장히 핫한데요.

저희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사실 난임 조례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사전 임신 관리 검사도 있고 다양한 금전적인 혜택도 있는데 이런 혜택 플러스 제가 또 생각한 거는 이 난임 부부들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건강 물론 지금 보건소에서나 복지에서 정신건강은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용인시만 좀 특화돼서 용인시 어떤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난임이나 플러스, 요즘 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 그런 부모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성화된,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도 질적으로도, 용인시가 젊은 부부 이주율이 높은 걸로 제가 보도 자료 최근에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건 아이디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정 의원]** 용인시에 주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해서 난임 부부에 대한 휴가를 주는 거를 만들었어요. 시범적 사업으로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도 좋으면 아마 이게 좀 널리 이게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제가 청년들을 생각을 하면 청년에서 우리 중장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에서 부모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될 지를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청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반드시 부모 교육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디에서 봐도 그런 교육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교회에는 있어요. 예비 부부 이래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사실은 아이들의 돌봄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인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당황하거든요. 당황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청년 때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단계적인, 39세까지가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좀 가져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노자은 위원]** 하나만, 단순한 거라서 하나만 여쭙볼게요. 이게 우리 자료집이 친절함을 더했다라고 느낀 게 청년 포함 사업 목록을 분류를 해주셔서 되게 보기가 좋았는데요. 이게 그런 기준 자체가 청년 포함 사업 목록은 청년 연령대가 들어간, 대상 중에 들어간 사업일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은 오직 청년일 것 같아서 그럼 청년 포함 사업 목록은 앞으로의 관리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 거예요? 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같이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 **[김현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용인상공회의소 김현진 본부장입니다.

제가 은퇴할 나이에 청년 정책위원회 활동한다는 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 메일로 보내주신 자료 성실히 잘 검토해 봤는데 참 용인시에서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저희 사무실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젊은 청년으로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드릴 말이 없을까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현재 이런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추가로 뭐 고민되는 게 없냐 요청할 수 있는 게 없냐 물어보니까 저희 애가 이제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나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되는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고 아까 우리 임정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게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이런 복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일회성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는 지원 규모로, 물론 정부 예산하고 시 예산을 더하더라도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산 분야가 크게 들어가겠지만은 그래도 용인 수도권에서 용인이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예정이니까 용인이 선망받는 도시로 또 크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아기하고 청소년 중장년 노년이 융합될 수 있도록 골고루 그런 도시로 커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 **[간 사]** 저희 국장님이 청년도 관할하시지만 여성가족과도 관할을 하고 계셔서 청년 예산이 안 되면 여성가족과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오늘 의원님들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것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국장님.

○ **[교육청년여성국장]**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의견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박희정 의원님 부부 교육 그러면 청년 부부 교육이라는 타이틀로 또 뭔가, 지금 예비부부에 대해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 부부라는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청년정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태아부터 결혼부터 태아,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아이케어 북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한 권으로 묶은 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연장선에서 청년까지 들어간다면 생애 주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물론 복지국장님 계셨지만 노인 복지도 어떤 큰 타이틀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또 중장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서비스하고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한눈에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거 그런 거 잘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 기본계획 수립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눈여겨 봐주실 게 단계별 로드맵도 실제 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1년짜리 26년도 시행 계획 그리고 27~28년도 2단계로 해서 좀 잡고, 그리고 29~30년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했다는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서가 작성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일자리 부분 많이 고민하시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 센터나 대학플러스센터나 다 이렇게 들어가서 하지만 일자리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그 청년의 일자리가 조금 더 특화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또 일자리 정책과 한 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도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박희정 의원]**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 용인시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만들어내고 상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것까지 다 지원을 공짜로 해줘요. 그래서 그 흥덕에 지금 새로 생겼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창업지원센터를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산업진흥원이 너무도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발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한다고 제가 계속 야단을 치거든요. 몰라요. 용인시에 산업진흥원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여기랑 연결을 해서 정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연결을 해 주면 이게 좀 홍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희 청년들이 정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1인 창업 지역 이런 것들이 다 장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몰라요. 몰라서 못 써요. 네. 이상입니다.

○ **[교육청년여성국장]** 스타트업 개소를 작년에 하고 그게 저희도 방문하고 그러면 되게 놀라운데요. 거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최상국 위원님 근무하시는 곳이니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실제로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파트가 여러 파트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는 청년기업인협의회도 우리 청년정책과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상공회의소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 관련해서도 실제 문화 예술가가 직접 담당을 하지만 청년정책과에서 그분들이 또 어떤 게 필요로 하는지 함께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고 청년 농업인들도 지금 이 파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자체가 이렇게 많이 구분되어 있으니깐 앞으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간 사]** 네. 청년정책은 청년정책과에서만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과와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계를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청년LAB 중에 이 처인구 쪽 청년LAB은 명지대 앞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는데 2028년에 이사를 가요. 근데 그 위층이 산업진흥원이 쓰는 공간이라서 그런 식으로 공간을 합치다 보면 정보도 겹치고 위층 올려보낼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 **[김정훈 공동위원장]** 네.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주신 사업 담당자분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사업 담당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자 12명 : 김정훈 공동위원장, 임정섭 부위원장, 이기옥 위원, 문명순 위원, 박희정 위원, 김현진 위원, 노자은 위원, 최상국 위원, 김현기 위원, 박예지 위원, 손현수 위원, 이승현 위원